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66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3. 12. 27(수) 14:00 ~ 17:42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 김미라 위 원
- 김진각 위 원
- 배은주 위 원
- 서승미 위 원
- 이훈경 위 원
- 장미진 위 원
- 장인주 위 원
- 정갑영 위 원
- 정정숙 위 원
- 정종열 위 원
- 홍성태 위 원

1. 성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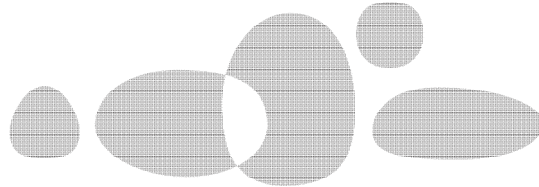
정병국 위원장 : 제36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7건, 보고안건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인재성장부 신연주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3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현재 위원 전체 12인 중에서 9인이 참석하셔서 회의 정족수 3분의 2인 8인 이상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한 분은 곧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페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1월 24일 개최한 제365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어 1건이 원안의결, 1건이 수정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29호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안건번호 1029호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과 지

원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21일 어린이·청소년 사업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마치는 바람에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7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은 9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설명회 진행후에 지원신청 공고를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창작영역은 10월 26일까지, 정책영역은 10월 30일까지 접수했고 국제예술네트워크 유형은 연장 공모를 추진해서 진행을 했고요. 7페이지 아래의 표에 지원신청 접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창작영역 2,394건에 공모예산 243억 6,400만 원 그리고 정책영역 4,893건에 공모예산은 316억 5,700만 원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서 접수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했고요. 11월에 위원님들께서 4개의 수사사업 관련된 의결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수사공모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내용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심의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의 진행 전에 심의위원들과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심의위원 후보단 개편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전체 사업들은 다 전수 검토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 후에 평가의견을 다 작성하고요. 국가문화예술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채점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결과 안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접수 결과에 대해서 11월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안내를 했고요. 심의결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1차심의 이후 2차 인터뷰심의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번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지원제도가 비수도권 소재 선정자 관련해서 지역균형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창작분야는 27.1% 그다음에 향유분야가 38.4%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창작영역, 정책영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균형지원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기준이라서 향유분야는 사실 신나는예술여행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다 창작사업에 해당돼서 이것은 신청건수 대비 27.1% 그다음에 향유분야는 38.4%가 신청을 했습니다.

10페이지 표를 보시면 기준비율은 신청건수 대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행정결격 등이 제외된 건수가 심의대상 건수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원결정 현황은 마지막 표에 보시면 창작분야에서 25.4%, 신나는예술여행 쪽에서 38.6%로 최종적으로 27.2%가 돼서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666명 위촉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별첨1을 참조하시면 사업별, 분야별 누가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37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의위원은 총 21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불참 4명, 제척 1명이 발생했습니다. 구성경로는 심의위원 후보단 666명에서 구성했고요. 연령대, 성별, 지역 등의 비율을 확인해 보시면 신진이라든가 남성과 여성의 비율, 비수도권 비율 등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반영되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심의대상사업 그리고 심의일자, 심의방법 등에 대해서 창작의 과정, 문학, 시각, 공연예술, 다원예술, 정책영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로 지원결정 현황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각주로 달린 부분이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잔여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58억 6,400만 원인데 이중에 50억 정도는 공연예술 창작산실이 3차 실연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선정해서 본 공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8억 3,900만 원은 공연예술 창작주체에서 중대형 공연장 지원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지정형사업의 경우 주관처 심의가 진행 중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지원결정 현황이 변

경될 수 있고 만약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교류사업은 2024년도 수시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더해 지원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유사업 선정단계별로 순회 희망 회차를 적용했을 때 최대 127억 6,900만 원이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매칭이 완료되면 최종 결정액이 확정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잔여예산 1억 2,000만 원 정도는 도서지역 교통비로 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는 창작의 과정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학, 시각,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세부 장르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는 정책영역에 대해서 국제사업, 현장예술인력사업, 청년예술가사업, 신나는예술여행 사업도 분야별로 신청건수와 결정액 등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도 세부적인 창작영역, 정책영역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논의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이어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국회지정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무용분야 공모사업에도 선정(2억2천만원)되었으나 지원심의 이후에 국회지정사업으로 예산이 확정(6억5천만원)됨에 따라서 공모 선정대상에서는 취소해주시고 예비로 선정된 무용분야 축제유형 예비 4개 사업을 선정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발표는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정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지를 하고요. 엔카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내용은 심의위원 종합심사평, 향후 진행사항. 그러니까 교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타사항으로 다년도 지원사업들이 주체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단계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이 2024년 지원결정 금액이고 2025년과 2026년 지원은 모니터링 평가결과라든지 국회예산 의결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정산 부적격자 처리도 2023년에 미정산이면 2024년도에 교부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에는 전체적인 심의위원 명단과 지원심의 결과가 사업별로 되어 있고요. 결정내역서가 엑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4번에 지원심의 사업별로 총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해 주셔서 심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사업도 47개의 사업이 17개로 통폐합되면서 전면적으로 개편된 사업 개혁안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제기나 다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이나 그 분야에서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얘기가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정종열 위원 : 선정률을 보니까 공연예술 쪽에서는 예년보다 조금 더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국제예술네트워크구축이나 활용 등 정책분야는 선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더라고요. 다원 같은 경우도 확 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궁금했고요. 또 이번에 전수검토제로 많이 건수가 늘어나서 한 분이 400건을 넘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몇 주의 시간을 드려서 검토를 하게 했는지? 그리고 검토하신 분들의 의견이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김에 총평을 제가 쪽 훑어봤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붙은 사람들은 총평을 읽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떨어졌나?” 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서요. 특히 여기에 보면 소회 및 당부사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총평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쓰여져 그것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소회 당부사항이 작은 경우도 많고요. 그런

데 시각분야 같은 경우 제목을 하나씩 지었더라고요. 해당사업의 지원취지나 심의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다른 분야에서도 감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답변을 해 주시죠.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사실 정책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원공모예산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심의는 대체적으로 200~300건. 많은 경우에는 500건, 600건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주 정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께서 400건, 500건, 600건이 되는 경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기는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총평은 공개를 하나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총평은 공개를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총평을 저도 쪽 읽어보니까 장르별로 뭉뚱그려서 그냥 일괄적으로 쓴 게 있고 지금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각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분지어서 보기 좋게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는 어떤 포맷을 정해서 일반적으로 정책 고객들이 쉽게 볼 수가 있고 총평을 보면 “내가 왜 떨어졌을까?” 에 대한 의문을 갖던 사람들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포맷을 정해주는 건 어때요? 시각분야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예. 사실 지금도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잘된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걸 발표하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의 컨설팅을 하는 형식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와서 일정기간 동안 컨설팅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떨어지고 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불평불만들이 많은데요. 총평도 나가지만 이러한 기준에서, 그러니까 심사기준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고 어떤 방향으로 했다는 것을 컨설팅 식으로 설명해 주면 다음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팀을 짜서 일정기간 상담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0호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지정형 공모추진(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온라인 화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21페이지 2024년도 국제예술네트워크 유형2 신규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현장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제교류 파트에서는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권역의 우수한 거점을 기관에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니즈를 많이 청취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5월에 세계총회에 참

석하셨을 때 멕시코 문화부의 문화축제국장과 면담을 통해서 중남미 교류협력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셨고요. 세르반티노 축제조직위와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세르반티노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30개국에서 참가를 하고 40만 명이 관람하는 중남미에서는 가장 규모와 명성이 있는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올 10월에 저희 담당자가 직접 가서 현지 미팅을 하고 현지 점검을 했고요. 멕시코 연방정부 산하에 국제축제 세르반티노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한국 단체를 파견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총 10인 내외의 공연예술분야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하고 예술위원회에서는 항공비, 운송료, 사례비, 기타경비를 총 8,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세르반티노 측에서는 멕시코 내의 이동, 숙박, 투어사례비, 공연장, 테크니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선정단체는 세르반티노 축제 공연에 참가하고 멕시코 내의 지역투어 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아티스트 토크와 다국적 프리젠테이션의 미팅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내년은 첫 파견이기 때문에 축제의 성격이나 총감독의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접수는 저희 쪽에서 받지만 심의는 현지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중남미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예술단체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국제축제 세르반티노는 매년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당초에는 수시공모가 나갈 때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지에서 투어일정을 짜려면 2월 말까지 선정을 마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별도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번 축제를 계기로 중남미권에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에 파견단체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그동안 중남미 쪽의 교류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장르는 불문인가요? 장르는 어떻게 되나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지금 공연예술분야로 확정을 해 놓았고요.

서승미 위원 : 공연예술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다 포함되나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서승미 위원 : 받아 보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다만, 그쪽 축제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현지에서 오래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성격은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서승미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선정은 멕시코 측에서 하는 거죠?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저희가 접수를 받고 현지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미라 위원 : 제가 이번에 국제공모전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쪽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의 반대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각국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사이트에 대한 성격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온라인 사업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되면 제안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1호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극장운영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2024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연예술분야인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등 3개 분야의 우수 대본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극작가와 작곡가와 발굴하고 유통, 프로모션까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은 공연화가 가능한 완성된 대본. 공연시간으로는 60분 이상의 분량이고요. 미 발표된 연극대본과 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 분야의 대본과 음악으로 구성해서 지원신청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3억이고요.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각 선정 작품별로 참여 예술인들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총 20여 건 정도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연극은 희곡작가에게만 각각 1,000만 원씩 10개 작품을 지원해서 1억을 지원하게 되고요. 창작뮤지컬은 작곡가와 희곡작가에게, 둘이 매칭해서 1개 작품을 내면 5건을 선발해서 총 1억을, 그러니까 팀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창작오페라도 창작뮤지컬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20개 작품을 발굴하고 포상금으로 3억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2024년도의 중점 추진사항들은 먼저 창작오페라 분야는 올해의신작 사업과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작품을 선정하면 차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실연심의를 진행할 때 자동연계가 돼서 실연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유는 오페라 분야는 희곡작가와 작곡가들이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사항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로 저희가 올해 선정되는 작품에 한해서 저희 극장에서 창작뮤지컬과 연극 분야는 대본 낭독공연을 통해서 프로모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가 간접지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기간은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4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본 사업은 철저하게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은 작가의 인적사항이나 이름 등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작성된 원고와 음악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사기준은 30쪽에 있는 해당 내용들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 또한 작품의 예술성입니다. 예술성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쓰여진 작품이 과연 무대화가 가능한 작품

인지까지 해서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대본, 시놉시스고요. 뮤지컬과 오페라는 악보나 음원 등이 반드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지원신청 접수를 통해서 이후에 심의를 진행하고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은 5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5월 말 정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대본의 분량이 상당히 많고 지원건수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소 심의기간이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점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원금과 포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지원금은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항목에 돈을 쓸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그 예산의 적정성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안이고요. 이 사업은 대본이라는 결과물을 저희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열 위원 : 그러면 정산이 필요 없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예,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김미라 위원 :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창작오페라 분야는 5건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연심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연심의를 대략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저희가 창작오페라 분야의 신작 같은 경우 민간단체 스스로가 작품을 개발하고 진입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은 창작산실 오페라 분야에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이미 5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희곡과 대본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해당 단체와 매칭할 수 있는, 그렇게 간접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씩 받아서 이 사업들을 갖고 마포아트센터에서 30여 분 정도의 쇼케이스 형태로 실연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5개 작품 중에서 2개 작품이 선정될 수도 있고 3개 작품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2호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지원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이어서 홍승욱 극장운영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본 사업은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가운데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예술위가 비평지 지원을 하고 있는 2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올해 창작주체를 통해서

한국연극지나 춤지 등의 발행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미 오늘 의결해 주셨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비평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개인비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극장운영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비평 활성화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 담론 형성에 기여를 하고 다양한 관점 및 형식의 비평 활동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 다원예술을 포함한 비평 활동 계획이 있는 개인을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격의 요건들은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비평 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3편 이상)에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300만 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대본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정산의 의무가 없고요. 본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고된 비평 원고의 경우는 타 지원사업에서 원고료, 사례비 중복 수령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3,000만 원이고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총 10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들을 통해서 성과는 비평 실적들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도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4일간 진행이 되고요.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비평 활동을 했던 실적들을 반드시 필수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회의를 2월 중에 진행하고 3월 말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4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개인 비평 지원사업은 저희 비평지원 사업이 있었던 그 시기부터 같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구분을 하게 된 시점은 3년 전부터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평지 창작주체를 통해서 지원받는 비평지의 주요 월간지나 개간지들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쪽 안에서도 물론 비평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비평 활성화를 조금 더 북돋고 붐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되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포상을 받은 분은 그 다음연도에 제외가 되나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르에 따라서 평론가, 비평가라는 용어도 조금 어색하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한정적인 장르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몇 사람을 위한 지원이라고, 물론 포상의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약간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장르 간 특성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통예술 분야와 음악 분야는 평론가들이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대상들은 신진에 가까운 비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것을 봤을 때 조금씩 비평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내던가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아직 도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저도 그것을 생각했는데요. 음악이나 몇 개 장르들은 비평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서요. 도리어 열어놓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비평 활동 실적이 3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가 정해져 있나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아닙니다. 최소 요건이라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요건들은 그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비평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김미라 위원 : 저도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하셔서 다른 파트, 예를 들면 시각예술 쪽에도 비평지원 사업이 있는 건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있습니다. 오늘 공모심의를 했던 결과에 보면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은 개인만 대상으로 별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현장 업무보고 때도 평론이 많이 죽어 있어서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어요.

김미라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장르를 다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비평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처우도 그렇지만 비평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비평 지원사업만 하나의 큰 틀가지로 해서 그게 각 장르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묶어서 외연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창작주체지원에서는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연극’, ‘춤’, ‘춤과사람들’ 처럼 월간, 개간으로 해서 지원하는 대신에 공연예술의 개인 비평 부분은 3년 전부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닌데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 창작주체라고 하니까 분명히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을 잘 몰랐던 게 창작주체 중에는 실제 예술 실기도 있고 이론도 있고 비평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성격을, 일단 우리가 창작산실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비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 안에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는 나중에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청년예술가와 관련된 양성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평 사업이 아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왜’ 에 더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평등과 관련된 비평이 너무 없다는 점이 있어서 그런 성평등 비평 양성사업들이 지역에는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비평가들에게 이런 식으로 “응모해라 지원해 줄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이런 것을 해도 공연 분야에서 비평가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사업도 기획을 해봐야 하

지 않을까? 그냥 열어놓고 응모하면 주는 형태, 간접적으로 지원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성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비평가 관련된 현재 환경생태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파악하고 어디에서 비평가들이 양성되고 있는지도 보고요. 그게 만일 너무 부족하다면 그냥 “지원해라.”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태계 조성도 기획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3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이 건은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규정은 저희 위원회 규정 중에서 기본규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확정이 되는 규정이라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님과 8기 위원회가 연초에 구성되고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번의 검토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개정 사유를 보시면 사업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내 사업 업무 간 유사·중복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추진목적이고요. 방향은 핵심 분야인 문학, 시각, 공연 예술의 지원사업 중심으로 지원사업 관리본부를 최대한 통합해서 저희 창작과 향유 공모형 지원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무처 하부조직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개정 내용 중 특이사항은 기본 하부조직 명칭을 기존의 부에서 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에서 인식하실 수 있는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상명하달의 위계적 조직에서 구성원의 공동책임이 강조되고 유연한 사업운영이 가능한 성과주의적 조직 체계인 팀제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팀으로 변경하면서 직급이나 호칭 중심의 위계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평가제도도 후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49페이지를 보시면 현재와 변경하고자 하는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직구조는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센터, 1원, 17부의 구성인데 개정은 본부가 1개 줄어들어서 3본부가 되고 극장, 미술관, 감사실 그리고 후원센터 그리고 기록원 외 13개의 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부 1개 축소 그리고 부서가 4개 줄어드는 구조로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9페이지의 조직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신설된 조직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8기 위원회와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강조하고 있는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된 업무를 사무처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빼서 문화예술후원센터로 별도 독립시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후원센터에는 기존 후원센터 업무에 더하여 홍보 업무와 정책연구 파트가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전략본부는 기존 4개 부서에서 3개 부서 3개 팀으로 줄어들어서 업무를 조금 더 긴밀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ESG 경영 부분은 인사소통팀으로 들어가고 법정평가 업무는 기획조정팀으로 들어가서 사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예술지원본부를 보시면 기존 지원총괄부 역할은 그대로 있고요. 그 대신 지원총괄부에서 전체 공모형 지원사업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지원팀, 시각다원예술팀, 공연예술팀으로 구분

이 돼서, 50페이지 이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분장(안)을 넣어 놓았는데요. 문학지원팀에서는 기존에 하던 문학사업과 인문사업. 그리고 시각다원예술팀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 축소가 된 융합예술 사업을 총괄하면서 융합예술사업이 장르사업 전반으로 포함돼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예술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공연예술부의 업무에 추가하여 신나는예술여행 공모사업이 포함돼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있던 예술기반본부가 없어졌는데요. 기반본부의 업무가 예술지원본부하고 문화확산본부로 분리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확산본부에서는 문화누리부가 있고요. 문화누리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누리카드 업무와 내년부터 신설된 청년예술패스 사업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협력팀은 국제교류사업과 신나는예술여행의 기획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게 되고요. 예술인재양성팀에서는 청년예술가에 지원되는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현재와 동일하고요. 이렇게 사무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후속으로 2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보면서 교류협력팀이 국제교류부와 지역협력부 사업을 아우르는 게 맞죠? 그게 협력네트워킹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협력은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발도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국제교류는 그와 정반대 쪽으로 일이 많은 것이라서 이 2개 팀을 교류협력으로 모아 놓는 것이..... 협력이라는 측면으로 말은 같지만 성격은 굉장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었습니다. 두 팀이 한 부서 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지역협력에서 신나는예술여행 쪽에서 있었던 프로그램 자체가 나중에 국제협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있으니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단일화된 것은 좋지만 정말로 성격이 다른 2개의 팀이 한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기대를 갖고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논란이 워낙 많았던 분야입니다. 제가 당초에 생각하기는 국제교류팀이라고 별도로 봐야 되는가? 국제교류를 별도로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학이든 시각이든 공연이든 국내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내다보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에이프 캠프 같은 경우 국제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간다고 하면 국제교류라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지원사업에 다 녹여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들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해서 교류협력팀을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하고 교류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17개 시도에 문화예술재단이 다 완성되었고요. 기초까지 포함하면 140개의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졌고 정부의 방침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지역문화재단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조금 더 글로벌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게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향후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대 70으로 하겠다고 하면 30만 규모의 예산을 지방에 할당하는데 그냥 할당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시도별로 문화재단에서 자기를 대표선수들을 선발해서 올리면 그 예산 내에서 지방끼리 같이 경쟁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중앙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하고요. 더 나가서는 그렇게 선발된 것이 국제교류. 아까 중남미 축제에 파견을 보낸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방 것도, 지금은 수평적으로 계속 하게 되니까 질적인 면이 제고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티스트는 괜찮은데 기획자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해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현지 아티스트들과 믹스를 해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경쟁을 해서라도 올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조직 구성을 해 보자고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 팀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성격을 만들어가면 오히려 체질을 개선하고 판이 달라질 수 있는 아르코만의 지역예술에 대한 사업들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번에 이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된 동기는 1차적으로 대국민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통폐합해서 구조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심사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44개 사업이 17개로 통폐합이 되면서 사업별로 부서가 나뉘었던 것을 사업의 수에 따라서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계속해 왔는데 수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몰리는 겁니다. 중간층에서는 밑으로 패스만 되고요. 가뜩이나 인원수도 적은데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장이 차장이나 과장을 거치지 않고 대리한테 직접. 빨리 결과물이 나오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이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러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최고의 전문가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팀제로 해서 수평적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팀장은, 제가 계속해서 면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책이나 직급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팀장은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부장이 될 수도 있고 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본부장이 팀원이 될 수도 있고 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팀을 수평적으로 책임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칸막이를 없애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냥 밑으로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인데 모험적이기는 합니다.

김미라 위원 : 살짝 되돌아보면 올 한해 사무처에 계신 직원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숨 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워크숍 이후 사업의 체질 개선도 했고 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많이 했고 이제는 조직까지 이렇게 해서 진짜 제가 문예위에 온 이후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이 정비되고 심의제도도 정비되고 심사위원회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정비가 되어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좋은 방향으로 공모사업. “우리 예술지원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좋은 예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홍성태 위원 : 우리 아르코가 공공단체이기는 한데 제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을 하는 경영전략본부 외에는, 말하자면 생산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르코의 존재감이 일반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아르코의 존재와 역할이 뭔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에 홍보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센터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개념으로는 후원금을 모으는 것만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부서를 후원한다는 개념도 같이 넣자고 해서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정책팀을 센터에 넣어서 연구자료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영전략회의를 매주 하는데요. 그때마다 주제를 하나씩 선정합니다. 각 부서별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발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서별 현안이나 이슈를 개선해 나가는 논의구조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정책전문위원도 전문위원답게 고유의 영역 속에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그것을 갖고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서포트 한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두었고요. 그리고 홍보팀도 조

금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팀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외부 기획사를 통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살아 있는 홍보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나가니까 언론에서 받지도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홍보팀은 기자들과 늘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실어줘.”,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기획사에서는 그렇지 않고 보도자료 내니까 보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홍보팀을 사무처장 직속으로 해서 사무처장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게 별도 구조를 만든 겁니다.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존재감이 약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지점에 있어서 개인으로 하는 예술나무도 굉장히 좋지만 만나 보면 기업들 중에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사람을 하나 뽑아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 경우가 첫 단계고 그다음 단계는 메시지를 두드리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된 분을 만나게 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도 지정기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알아보겠다.” 라고 하고 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차원에서 문화예술 후원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또는 효과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장르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도 후원센터에서 같이 해서 알려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이미 지정기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술나무 후원 회원을 모집했는데 정기회원이 3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모은게요. 그런데 제가 와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사회적 후원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의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 각자가 하던 부분들을 여기를 통해서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자고 해서 기존에 있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엄청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초가을에 했던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날 하루해서 정기회원이 10년 동안 한 만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자고 했고 아르코라운지클럽 강좌를 만든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고 문화후원지수(가칭)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이 나오면 그것을 제도화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활성화법 같은 경우도 다시 전부 다 점검해서 기업들이 후원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법제화하자고 해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체계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효율화 된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팀제로 하면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만, 기존의 조직도에 비해서 개편된 조직도를 보면 후원센터가 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 전략이나 혁신, 정책, 홍보 등의 내용들은 이 조직도 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내용상 다 들어가 있죠. 도대체 어떤 것에 포커싱을 했는지가 잘 안보여서요. 예컨대 문화예술후원센터 안에라도 정책이나 홍보 등이 보일 수 있는, 조직도 안에서도 전략 등이 보일 수 있는 팀을 간단하게라도 써주든지? 아니면 ‘후원홍보센터’ 라고 하든지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굉장히 안일해 보입니다. 지금 이 조직도만 봐서는 핵심도 안 보여서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책파트, 홍보파트, 후원파트를 팔호로 해 놓고 넣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정정숙 위원 : 지금 이 상태로도 문제는 없겠죠. 내용은 다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조직도를 보면 후원은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가 좀 불쌍해 보여요. 후원을 받겠다는 의지만 밝힌 것 같아서요. 우리는 후원을 받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애처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나 전략,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진각 위원 :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고민을 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미리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생각도 해 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안을 처음 보고 든 생각은, 사실 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조직을 끌고 나갈만한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경영전략본부가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르코가 처한 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책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과 정책기능을 강화해야만 아르코가 채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책 부서를 후원센터에 집어넣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독 부서가 어렵다고 한다면, 물론 단독 부서로 존치하기에는 공간 등 조사를 다 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능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조직도 하나의 상징할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기능을 후원센터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르코의 앞으로 방향성과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독 부서가 어렵다고 한다면 중요한 팀으로 배치가 돼서 후원하고 논의하는, 후원센터에 들어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슈별로 아젠다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사실 부수적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책 부서에서 경영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스가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밍의 문제인데 ‘문화 확산’이라는 용어 그리고 예술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직도 아마 내년이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환경 자체가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화 확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의결해야 되는 문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안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조직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2월 1일자로 인사는 해야하는 일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정책, 정책 부분은 정책혁신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4명의 박사급 인력이 있는데 연구 외에 다른 행정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뺀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지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지금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그 부분은 부분 수정해서 다음 회의 때 수정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수정해서 의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명칭을 바꾸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후원센터라는 명칭을 정책후원센터라든가 정책홍보센터 식으로 센터명이 아예 드러나게 명칭을 바꿀 거면 지금 의결을 해야합니다.

김진각 위원 : 예. 그런데 정책팀이 후원센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정책이 후원센터에 들어가나요?

정병국 위원장 : 후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 후원, 홍보적 후원 등 사업 부서들을 후원하는 의미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특화 시키자고 해 놓은 것인데 전달이 안 되네요.

김진각 위원 :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책이 마이너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이저하

게 다뤄야 될 그럴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정책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일 부서가 없어진다면 기획조정팀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기획하고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박사급 전문위원들에게 연구 외에 부가업무가 많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놓은 건데요.

홍성태 위원 :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합해서 문화예술후원센터를 정책센터로 바꾸고 그 밑에 후원팀과 홍보팀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대부서화가 되면서 중요한 3가지 부서가 합쳐지면서 어떠한 부서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자면 서울문화재단도 지금 후원기능과 정책연구 기능, 홍보·마케팅 기능을 하나의 본부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본부 밑에, 그러니까 정책협력실이라는 큰 우산 아래 정책연구팀, 제휴협력팀이라고 해서 후원사업팀 그다음에 홍보마케팅팀으로 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문화예술후원센터라는 명칭에서 후원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고 하면 정책연구후원센터 등의 용어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라 위원 : 문화예술후원센터 대신 문화예술정책센터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예술정책센터 내에 후원팀과 홍보팀이 있는 상황으로요. 정책이라는 쪽의 저희 방향이 작지 않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요.

김진각 위원 : 정책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랜을 짜는 곳이기 때문에 후원센터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정책센터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서울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이고 아르코는 국가문화예술기관인데요. 그쪽을 따라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정책 부분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르코의 미래 등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후원센터에 같이 집어넣고 돌린다는 건 격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사실 문화예술후원센터 밑에 홍보와 정책이 같이 있는 부분은, 그 3가지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사무처장 직속으로 해서 직접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업무 3개를 별도로 뺀 것이고요. 명칭 부분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별도로 뺀 이유는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팀에 넣지 않은 이유가 고유의 업무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려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무처장 직속으로 놓은 겁니다. 그런데 후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그런 것이면 지원센터라고 하면 마찬가지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논의의 정리를 위해 10분 쉬고 3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논의하던 1033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후원센터 내에 정책파트, 홍보파트, 후원파트가 함께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명칭 변경을 하든지 또 다른 안이 있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문화예술후원센터는 사실 후원을 하고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후원하고 홍보 쪽을 같이 묶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후원·홍보센터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정책을 어디에 넣느냐는 부분인데요. 경영전략본부 내에 기획조정팀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획정책팀으로 한다거나 정책기획팀으로 해서 이쪽에 배치를 시키는 게 어떨까?

정병국 위원장 : 경영전략본부장은 어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이게 부서별 업무량이나 월별로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정책과 기획조정 업무를 못 붙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기획조정부와 정책혁신부를 분리해서 운영을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정책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혁신부에서 하던 각종 평가업무들을 기획조정부로 다 옮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정책연구까지 기획조정부로 오게 되면 사실 부장의 업무량이나 관장을 하는 업무가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 4명의 박사들이 정책연구만 전담하게 하려면 별도로 독립된 부서에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이런 제안은 어떨까요? 정책영역이 경영전략 내에서 빠진 상황이라서 경영전략 본부의 명칭을 경영기획본부로 조정하고요. 문화확산본부의 전체적인 기초가 문화예술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반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확산본부를 문화기반본부로 수정하고 사무처장 직속의 이 부분을 문화예술전략후원센터 형태로 바꾸면, 전략이라는 것 자체에는 정책영역도 포함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적 영역들을 갖고 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니까 문화전략후원센터?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문화예술전략후원센터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문화확산본부를 문화기반본부로 한다?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예. 그리고 경영전략본부를 경영기획본부로 바꾸면 어떨까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후원센터가 아니라 문화예술확산센터가 조금 더 근접한 명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확산본부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산은 양보하고 후원으로 갔다. 그런데 후원이 안 맞는다는 논의 같거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문화예술확산센터로 가고 본부의 이름을 기반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김진각 위원님은 정책이 들어가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취지잖아요?

김진각 위원 : 중요한 쟁점은 정책을 문화예술후원센터에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경영전략본

부의 어느 팀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느냐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화예술후원이나 확산이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책 쪽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부나 후원센터 산하가 아니라 위원장 직속이나 사무처장 직속으로 해서 정책팀을 놔두고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문화예술정책·후원센터로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죠. 노조위원장님도 의견을 내 보세요.

김효은 노조위원장 : 저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빨리 문화예술후원센터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미 현재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파트나 홍보파트의 정체성 관련해서 고민이 깊으신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후원센터의 네이밍만 바람직하게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까 누가 또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나요?

장인주 위원 : 지금 노조위원장님의 의견과 같고요. 56쪽인데 검토하면서 사실 조금 당황했던, 우려했던 부분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후원센터에 대해 인식되어 있는 서포트를 하는 기능 때문에 그냥 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아무도 이 기능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확산센터. 그러니까 센터가 주는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센터를 바꿔서 뭔가 다른 이름을 만드는 게 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과 센터의 두 단어를 바꾸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여쭙보면 문화예술후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뭔가 큰 미션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원로예술인복지지원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 아까 궁금했거든요. 약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름에 논의가 너무 많아서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2000년대 중반에 생계가 예술계에 공헌을 하였으나 생계가 어려운 원로예술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만들어지고 몇 년 후에 기재부에서 이 사업은 복지성 사업이라고 해서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정을 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돌아가시면 접는 사업입니다. 현재 5인이 생존해 계시고, 예산이 예술의 가치확산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잔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다른 부서에 배정하기는 애매해서 그냥 동 사업을 하던 부서로 배정해놓았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복지재단 쪽에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구를 축소하니까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예술가치확산센터가 문화예술후원센터와 용어가 같이 검토되었던 안이고요. 문화확산본부는 확산이 겹친다고 하면 문화진흥본부, 문화기반본부 정도로 할 수가 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아까 김진각 위원님께서 문화확산본부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바꿔놓읍시다. 문화기반본부.

정병국 위원장 : 그다음에 문화예술후원센터를, 김진각 위원님께서 낸 안은 문화예술정책센터 등도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놓고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정정숙 위원 : 아까 부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경영전략본부라고 했는데 전략이 그 밑의 팀들에게는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경영기획본부로 가고 문화예술전략후원센터. 전략후원센터는 좀 이상하네요. 전략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요.

김진각 위원 : 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김진각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이 명료하게 느껴집니다. 문화예술정책·후원센터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가지죠. 그리고 경영전략본부보다는 경영기획본부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영기획본부, 문화기반본부 그리고 문화예술후원센터는 문화예술정책·후원센터.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술정책·후원센터가 어떤가요?

정병국 위원장 : 예술정책·후원센터. 좋네요. 즐기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서 문화예술후원센터를 예술정책·후원센터로 하고 경영전략본부를 경영기획본부로 하며 문화확산본부를 문화기반본부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4호 제규정 관리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회의자료 61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규정 관리규정에서 제5조를 보시면 기존에는 규정이 새로 제정될 경우에는 조문 전문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의 경우에도 조문 전문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부개정이란 어느 정도 개정이 되어야 전부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했을 때 전부개정으로 본다는 부분을 규정 내에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별표 제1호가 수정되었는데요. 두 달 전에 ESG경영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정은 기본규정이 아니라서 보고는 되지 않았는데, ESG경영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규정 관리규정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마지막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5호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우영 경영지원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경영지원부장 :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있습니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다음 분기까지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건은 매년 경영정보 공시사항으로 등록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월에는 의결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된 안을 경영공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추진 방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안 자체가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공공기관의 책무 등이 강조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근로자 중심이었다가 종사자 중심까지 모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로는 근로자는 해당 소속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그리고 용역직 직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안전경영책임계획안 자체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및 안전관리 대상사업·근로자 생명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운영하고 산재 예방 및 중요시설물 관리를 통해 근로자 및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근 5년 동안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전체 중 2종 시설과 3종 시설, 기타시설이 있는데요. 2종 시설과 3종 시설은 면적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종과 3종을 나누는 것은 건축물 외에도 각종 교량 등도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2종 건축물에 해당하는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등 2개고요. 제3종에 해당되는 예술인력개발원, 예술인력개발원 연수동 그리고 예술가의 집과 아르코미술관이 있고요. 면적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로 분류되는 나주청사 등 총 8개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 인력은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 전문직종으로 시설물 관리 전담직종이 있습니다. 안전전담인력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전조직 구성 자체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성되는데요. 안전전담인력은 상시적으로 시설안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인력들이 실제로 전문가격증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안전관리전담인력은 각종 교육 그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을 포함한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안전경영 추진계획입니다.

작업장 안전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규정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분야입니다.

저희가 시설물 안전 같은 경우는 2종과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저희 같은 경우 3년에 1번씩 받는 형식으로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고요.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자체에서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문 외부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으로 다소 낮은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매년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국토교통부 소속에 있는 FMS 라고 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계속 등록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 계획입니다.

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을 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 받았던 평가내역을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이라서 외부 업체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간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1번 했었고 온라인을 병행해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많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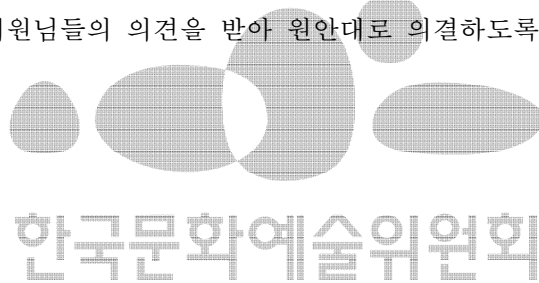
해서 많은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교육의 품질도 올려볼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예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경상경비가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 대비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시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그리고 안전사업비 및 안전 관리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안전 교육 및 안전물품 구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는 붙임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정비 개보수 관련된 부분은 나주청사나 공연장 및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 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아서요. 여기에 포함된 대부분의 절반 정도의 비용이 미화나 경비, 주차요금 등에 대한 외주 용역비까지 포함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업비 및 안전 관리비는 정기점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소소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 자체를 전용해서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설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때는 여러 가지 누수가 발생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올해 정비를 많이 끝낸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관련된 안전점검에서 시설에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은 총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에 대해서 홍승욱 극장운영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관 운영 방향은 지금 전세계 공공극장이 갖고 있는 가장 주요한 키워드인 기후위기, 접근성, 다양성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극장의 방향성을 정했구요. 그다음에 이어서 대관 중심 극장으로서 공공의 역할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과 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장이 갖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축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축제 사업을 위해서 2개년 대관 방향 유지와 개별 공연과의 균형 있는 선정. 예를 들자면 총 대관일수 대비 축제를 약 30% 정도, 개별 공연을 70% 정도 준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관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의 경우 미래극장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공동기획을 하고 대관 등 연계 강화를 하고자 이렇게 운영방향을 정하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고기간은 접수기간 25일을 포함해서 총 42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극장 4개관에 대한 공모대관 일수는 총 770일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23년도 정기대관 공모 시 2

개년 축제로 기 선정된 건수가 있는데요. 102일을 제외한 770일이고요. 실질적으로 해당 일수를 포함하면 872일이 실제로 대관이 됩니다. 전년대비 84일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결과입니다. 4개 공연장 모두 총 291건이 신청을 했고요. 전년대비 97건 약 150%가 지원신청 증가 비율입니다. 각 장르별 사안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회의는 총 4차례에 거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서류심의로 연극과 무용이 각각 개별 진행이 되었고요. 2차는 축제형 사업에 한해서만 인터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극, 무용, 인터뷰 등을 통해서 선정된 공연을 토대로 3차 통합심의를 진행해서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1차와 2, 3차에 있었던 심의위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총 9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3차 통합심의를 통해서 97건이 선정되었고요. 그중에 연극 35건, 무용 59건, 뮤지컬 1건, 다원 1건 그리고 기타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타는 전통예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대관사업 심의가 다른 일반사업 심의와 다른 점은 동일한 일자에 신청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관 일정을 조정하는 절차를 사무처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한 사안들을 갖고 66건에 대해서 사무처에 위임한 결과 저희가 조정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일자를 변경할 수 없는 5건이 발생해서 예비공연 6건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연극 같은 경우 통상 12일 정도를 대관하고 무용 같은 경우 통상 4~5일 정도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무용단체 2건이 연극단체에 선정돼서 건수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97건을 선정했고 예비로, 이게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각 재단 사업들을 통해서 선정되지 못하면 대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비 총 19건까지 해서 이렇게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70쪽을 보시면 각 정기대관 유형별 선정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쟁률은 전년 2.8대 1이었다면 올해는 3.3대 1정도로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연 장르별 건수와 일정 현황을 보시면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연극이 32건 선정되었고 일수로는 총 339일입니다. 그리고 무용은 62건이 선정되었고 일수로는 315일입니다. 그래서 연극과 무용의 건수와 실질적인 대관 일수를 균형감 있게 조정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축제 및 단독공연 결정 현황을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약 18.56% 정도가 선정되었고 일수로는 25.7%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공연이 약 81% 일수로는 74%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축제와 단독공연에 대한 비율도 균형감 있게 30대 70 정도로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는 2023년도 2개년 축제공연들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산했을 때 나오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결정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극장이 연극과 무용 중심으로 운영되는 극장이다 보니까 연극이 약 2024년도에 32건 정도 그다음에 무용이 약 62건 정도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를 드리고 수렴이 되면 29일 해당 내용들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추가 신청도 가능한가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예. 사업이 포기되면 예비선정된 단체들에게 먼저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요. 그쪽에서도 해당 일정에 공연을 못 한다고 하고 대관 일수가 남으면 수시 대관공모를 통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71쪽을 보면 다원작품 1개 작품이 아르코예술극

장 소극장에서 대관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분야를 어디로 지원신청을 한 것인가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다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런데 지금 연극하고 무용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셨잖아요? 이 경우는 어디에 포함해서 심의가 진행되었나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전체적인 심의위원님들을 보시면 평론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송현민 위원이라든가 홍은지 위원이 다원까지 사업심의도 하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의 역량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분야에 지원신청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기타부분하고 다원의 분야는 연극하고 무용에서 모두 다 같이 심의를 하십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면 신청할 때 아예 다원분야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장르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놓습니다. 복합장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장인주 위원 : 4개 극장이 연극과 무용 중심 극장으로 거론되면서 매번 뜨거운 감자처럼 거론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뮤지컬도 있고 행사도 있고 다원이라고 해서 따로 장르가 있잖아요. 물론 일수는 크지 않지만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정리하기보다 복합적인 극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연극과 무용이 중심이 되는 극장으로 갈 것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야 관객들이나 문화예술계분들도 이 극장이, 물론 대관극장이지만 위에 보면 목표로 기획 같은 경우 예술위 사업과 공동기획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정체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사실 지금 저희 공연예술계 전체적인 제작 방향들이 아주 클래식한 연극, 무용들도 다수 제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연극인지 무용인지 또 다른 다원 쪽 성격을 갖고 있는 장르인지 결을 잡아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어야 하는가?” 장소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다원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아르코예술극장의 공연구조물과 어울리는 작품이거나 예술성이 있는 작품이라면 충분히 선정이 가능하게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다원의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기획이나 대관운영 방향에 보면 충분히 무용장르건 연극장르건 더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작품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굳이 연극, 무용, 기타로 나누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구요. 그리고 선정된 작품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운영 방향을 잡으신 것과 맞지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미래극장을 위한 극장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하실 때 조금 더 홍보를 미리 해서 이 극장에서 공연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무용이다.”, “연극이다.”, “다원이다.” 라고 구분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방향이 맞는 공연예술 극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부장 : 예. 내년 준비할 때 미리 홍보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문학창작실 이용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자료 53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학창작실 이용지원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의 문학분야 사업으로 기재부를 통과했고 최근에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수요조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수요조사에 따르면 문학 분야 창작자들은 예전과 다르게 창작 전용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 뒷부분의 붙임3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87.7%가 개인적인 창작공간을 선호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구실 또는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창작집필실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7개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숙식 제공 집필시설입니다. 이 숙식 제공 집필시설을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작가들이 무려 77.7%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사업은 이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기존 지원사업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는 작가들. 생계형 검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 그리고 도심에 거주하는 작가들 그리고 신진작가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획이 제공되는 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고요. 예산은 6억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들이 시간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집필공간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기업을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이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시설을 저희가 점유하고 활용해서 집필 활동을 전개할 작가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서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간접지원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55페이지를 보시면 그림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개인형입니다. 그러니까 1인실로 집필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공동라운지형과 여러 작가들의 협업이 가능한 사무실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작가는 정해진 기간 중에 수행할 창작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선정된 작가는 전국의 편의상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약 2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확보해서 이 작가들이 각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신청사항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예상되는 지원으로는 연간 230명입니다. 이것은 4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 그렇고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되면 약간 줄어드는 수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평균 120만 원 정도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평가모니터링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참여 작가들의 창작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 확산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1월 중에 서면의결로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체를 용역으로 선정하다보면 저희가 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기간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권역별 배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붙임1의 예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문학인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통계를 가져와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권역별 배정내용도 사실은 안으로 구성된 내용이고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사업의 수행 계획을 세울 때 자문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자문회의 같은 경우 대체로 없던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작가들이 긍정적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의견으로는 단순히 집필이라는 개념보다는 작가 간의 협업이나 최근 다양해진 창작활동을 수용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참여 기업이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이 문화마케팅 차원에서 창작된 작품을 향후 공동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협력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한테 지나치게 성과에 대한 압박을 주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것들이 부정적인 사업에 대한 인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고 응답자가 총 411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료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혹시 그 자료 사진 중에 1인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사진대로 만드시는 건 아니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예시입니다.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위원님들께서 요즘 공유오피스라는 곳에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방문해서 찾아봤는데요.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기업들도 출장시 사무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여기와 아예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곳들도 많고요. 그냥 단순히 집필실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의 집필시설보다는 다른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추후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이 될 계획이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 모니터링 등이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작가들의 집필 효과를 어떻게 공유 확산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해서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97페이지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5월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제9차 문화예술세계총회에 참석하시고 현지에서 차기 총

회 의사를 피력하신 후에 저희도 굉장히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7월에 의향서를 제출했고 8~9월에 최종 제안서를 작성해서 10월 말에 IFACCA 이사회에서 제안 내용 PT를 거쳐서 2025년 5월에 제10차 총회의 한국 유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제 실행을 위한 첫 단계에 돌입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나마 진행사항과 현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개요는 9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 IFACCA 사무국에서 9회차 총회를 진행하면서 정해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계는 따르되 행사별 기획이나 부대행사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형식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제안 시에 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의 지평 확대를 위해서 보다 파급력이 있고 세계의 공동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래·연결·영향력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고요. 감사하게도 각국의 이사진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1월 22일부터 저희 IFACCA 사무국에서 방안을 해서 실사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체결식을 체결하고 유치 확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외 공표를 하고자 합니다. MOU에는 각 주체별 R&R과 추진체계가 명시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률 검토를 받아서 다시 내부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MOU 체결 후의 추진사항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내년 8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기획조정부에서 많이 힘을 써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최종 예산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대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연계입니다. 세계총회가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문체부 유관기관이나 광역재단 그리고 외교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미 문체부와 외교부, 공공외교 실무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지했고요. 예경, KOFICE, KF, 예술의전당, 아트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주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IFACCA 사무국의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고 전세계에서 7명에서 10명의 위원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각서 세부 내용과 세부 예산안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나 제언을 주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내년에 일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게 충격적이고요. 예술기술융합 쪽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하던 일에 예산을 배정을 못 받으니까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단순히 이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총회 개최 기간 중에 하는 에이프 캠프를 전세계에 국제공모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대로 에이프 캠프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음에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안은 확정이 된 게 10월 말에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예산심의 절차가 다 끝난 상태이므로 국회 심의에 추가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에이프 캠프는 2025년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선발된 사람들이 캠프에 들어오게 되고 일주일 정도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내년 사업부터 국제공모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을 모집하면 20명은 해외에서 공모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도를 해 보고 2025년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아르코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김나영 부장이 보고를 한 대로 유관 문화예술기관들과 외교부의 국제교류재단 또는 지방의 문화예술재단 등도 다 참여를,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까지 포함해서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2023년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6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정갑영 소위원장님이 오늘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 중요한 안건은 아르코 5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고 정책연구를 병행하는 내용인데요. 백서는 101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원고를 취합한 상태고 일부는 완성이 되었고 일부는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트3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파트1은 문화예술진흥원, 그다음에 파트2는 102쪽에 문화예술위원회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 때 논의한 것은 파트2의 문화예술위원회 부분인데요. 이것을 시대별로 분류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방식이 적절하냐는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백서를 집필하는 쪽에서는 연대별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경우에 예산 문제도 있고 위원회 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백서 시스템과 연계성도 고려해서 연대별로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것을 그냥 수용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트3 백서의 102쪽을 보면, 이것은 아르코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될 텐데요. 이 파트3하고 정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미래방향성과 과제들을 끄집어내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정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예술위원회의 첫 번째 연구 영역에 예술위원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부분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의 역할, 예술위원회에서 도대체 비상임위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느냐?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창작환경하고 예술위의 향유 부분들도 역시 연계를 해서 창작지원의 효과가 향유나 소비로 연결되는 과정 또는 변화 분석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연구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중장기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 예술위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타임스케줄을 잡고 있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3년 후원활성화 소위원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라운드테이블을 예술후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외부의 세계 쪽을 다루는 전문가와 모금 전문가 그리고 메세나협회의 임원 등을 모시고 라운드테이블을 15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04쪽을 보시면 3가지 정도 발제가 있었고요. 사무처에서 발제한 내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발제1과 발제2를 보면 문화예술후원 확대를 위한 세계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메세나 활동의 현황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후원 확대를 위해서 세계개편과 관련된 발제는 프랑스의 세계개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60% 정도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메세나를 보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이나 사회복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세나의 범위가 아주 넓고 세액공제도 자유로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메세나 활동의 현황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메세나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ESG쪽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슈를 살려서 기업들이 이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을 보시면 문화지수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이 있는데 후원활성화법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가 않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 예술후원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문화지수 지표를 개발해서 이 부분을 후원활성화의 근거조항으로 집어넣는 방안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어떤 기타 관련 법령. 문화예술후원과 관련한 법령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후원활성화법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는 식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뭐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이런 라운드테이블이 이루어졌을 때 발제한 자료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나요? 소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탑재는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진각 위원 : 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이분들이 자료를 공개해도 좋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끼리는 공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발송을 해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발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홈페이지에는 통상 정책연구 자료나 생산 자료들을 올리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어서 위원님들께는 발송해 드리고 홈페이지에는 가능하면 올리고 아니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8기 위원회 소위원회 및 TF팀 구성 계획안에 대해서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보고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했던 TF팀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여 보고안건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들과 시간을 들어서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월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 워크숍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소위원회와 TF 구성에 대한 사무처의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고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 중인 3개의 TF팀은 심의제도운영개선TF팀, 뉴서울CC운영개선TF팀,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TF팀 등 3개의 TF팀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09페이지를 보시면 8기 위원회 소위원회 및 TF팀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표로 요약해 드렸는데요. TF팀은 지금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소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3개의 임기가 3월까지 소위원회 운영기간이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구성되는 게 일정이 맞는 상황이고요. TF팀은 구성의 필요성과 현안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로 새로 구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무처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위원회에 수시 보고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때그때 있던 큰 이슈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 소위원회가 최소 1개 본부 업무를 전반적으로 자문을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명확하게 당해년도 소위원회 추진과제와 그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도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추진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메일을 보내드려서 소위원회 및 TF팀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1월 중에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어떤 소위원회와 어떤 TF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고 의결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구성안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많이 바뀐 저희 조직개편안과 연동을 해서 적어도 1개 본부에 1개 소위원회가 연동이 되면 어떨까 하는 사무처의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워크숍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일단 사무처의 의견이고 위원들 간에 워크숍을 통해서 더 깊이 논의하겠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1개 본부당 1개 소위원회 체제라고 개념을 하면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단지 사무처의 업무처리를 위한 자문기구로 전략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술위원회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1본부 1소위원회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워크숍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사무처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발상은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나 TF팀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마냥 해서 아무 결과도 없이 끝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소위원회든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아젠다를 뽑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워크숍을 통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일곱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 국회 확정 건에 대해서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 문예진흥기금도 확정이 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정부안이 확정이 되었던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변화된 것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총 기금운용 규모는 5,798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와 여유자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표의 수입 및 지출 규모를 보시면 자체수입이 1,147억 규모로 있고 정부내부수입이 복권기금 등의 외부 전입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운영규모는 사업비가 4,255억, 기금운영비가 206억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유자금운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의 적립금 현황 및 전망을 보시면 기말적립금이 2021년 말에 1,000억대 수준에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에는 654억 규모고 2024년도 말의 추정치도 700억을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비 규모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문예기금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안 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시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서울국제무용콩쿠르를 비롯해서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프로젝트 지원’ 까지 총 6개 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사업으로 들어왔고요. 특이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지원이라고 해서 새 정부에서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문화예술 체험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층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고자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총 160만 명의 청년들에게 문화패스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국회에서 170억 규모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 반영 예산이 총 19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이후 페이지부터는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IFACCA라든가 저희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했던 사업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기금운용계획변경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이후의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라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보고시 철저하게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통과해서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점검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방식으로 올 경우 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향후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도 되나요?

정병국 위원장 :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보통 평가를 하면 예술위에서 나가는 분이 4~5명인데요. 제 생각에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의 질적 수준에 대해 많은 사람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네. 평가단을 별도로 꾸리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평가도 담당위원들이 참여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평가를 해서 전달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 것도 3년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무리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전달을 한들 이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은 의결사항도 아니고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굉장한 결과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위원님 의견에 70% 동의를 하지만 30%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경 위원 : 사실 저희 위원들 아니면 국회증액사업에 대해 현장에서는 거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게 조금 더 대중화되고 그 시선이 넓어지면 하는 사람들도 시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 발짝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연구를 해 볼게요. 그러면 국회 증액으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고, 향후 모니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홍성태 위원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114쪽을 보면 5,798억 중에서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고요. 예술향유에 거의 3,000억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4,200억 중에서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창작영역에서 실제로 지원해야 하는 것들은 1,04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예술향유기회라는 것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유인촌 장관께서 창작예산 지원을 5배 늘리겠다고, 5,000억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3,800억 중에 향유에 들어가는 게 약 2,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00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요. 1,400억 중에서도 300억 가까운 돈이 정부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1,100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정률이 평균 22%입니다. 그래서 1,000억만 더 늘려주면 44% 되잖아요. 반 정도가 지원을 받으면 지금 현장에서의 아우성 소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막판에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게 IFACCA 총회와 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밖에 안 되는데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기금 1,000억이 깨졌기 때문에 1,000억은 남겨놓자고 해서 500억의 수입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이지만 정부의 지원예산이 적다고 얘기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전세계에서 정부의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게 대한민국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산을 더 주장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후원시스템에 의해서 1,000억 정도를 우리가 끌고 와서 그것을 대체해 보자고 해서 후원에 중점을 두고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메세나협회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직접 자기들이 지원하는 게 약 2,500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 문화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조금만 저희들이 노력하면 실질적으로 메세나협회와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것을 조금만 더 끌어 올리면.....우리 매칭사업으로 250억을 했죠? 사회적 후원으로 끌어오는 것. 그래서 750억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홍성태 위원 : 문화예술 향유 금액을 바꿀 수는 없나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 세부 사업 단위로 기재부에 설명하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전체 볼륨에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님과 감사님께서 국회 심의단계 때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100개 사업까지는 들어갔는데 안 된 것이죠.

이훈경 위원 : 저는 여기에서 답변을 원하는 말은 아니기는 한데요. 사실은 현 정부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화패스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중복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편성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다른 패스카드 사업과 변별력이 있을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데 고민을 해도 그것을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현장에서 주면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한번 지원하던 것을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화누리카드는 순수예술 쪽으로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5% 정도만 순수예술 쪽으로 쓰는데요. 청년패스는 오로지 순수예술 쪽에만 쓰는 겁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청년으로 한정해서 가야 하는 거겠죠? 이미 결정이 되었으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이훈경 위원 : 한부모 예술가라든가 조금 더 복지 쪽으로 확장할 수는 없나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1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짜서 올리잖아요. 올리면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세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집행을 보다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우리가 설계할 때 이게 더 효과적으로 창작자들에게 돌아가고 그게 향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예산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덟 번째 보고안건인 전담심의관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담심의관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고요. 아까 기초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회 워크숍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무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고 전담심의관제 개요와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평가모니터링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심의건수나 평가모니터링 건수가 가능한 것인가? 사실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서 대체적으로 2023~2024년 관련해서 통계를 뽑아봤고요. 일단 2024년을 먼저 보시면 문학, 시각,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이 있는데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연극/뮤지컬 부분이고요. 1,826건이고 심의차수가 3차지만 실제로 심의일수는 서류 5일, 인터뷰 6일, 실연 8일로 한다면, 그리고 이게 실연심의회까지 4월 정도에 마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12월부터 해서 4월까지 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가와 모니터링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2022년 2,297건, 2023년에 2,396건인데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고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전담심의관이 하는 게 적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121페이지를 보시면 외부 전담심의관은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 3배수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촉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담심의관인 직원들은 2년 주기로 선발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경력개발제도와 연계시켜서 인사위원회에서 분야별 1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부 전담심의관은 지금 현재 1월 5일까지 공모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외부 전담심의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일단 외부전문가를 666명에서 선정하는 것과 아예 외부전문가를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상임위원도 심의위원으로 가능한지도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1월에 하는 워크숍 때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담심의관 선발계획은 말씀드렸듯이 경력 10년 과장급으로 해서 해당 장르에, 아까 조직 관련해서 했을 때 공연, 문학, 시각, 다원팀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내부 관련해서는 심의총괄 부서에 배치를 하느냐? 장르별 부서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장르별로 문학, 시각, 다원, 공연팀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 이런 경우에는 심의총괄하는 부서에서 표준화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게 워크숍 등을 강화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담심의관의 주요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말씀드린 지원심의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전담심의관이 분야별로 되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아까 연극/뮤지컬의 경우처럼 물리적으로 심의가 가능할지? 그리고 사실 평가나 모니터링도 가능할지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2페이지를 보시면 사후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평가와 모니터링 건수도 2,000건이 넘어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문학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15명, 시각도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전담심의관하고 후보단에서 평가를 같이 하실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담심의관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계속해서 위원회와 현장이 소통하면서 어떤 사업의 개선, 방향 등을 같이 논의하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관제의 도입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수시공모 4개 사업부터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역할 조정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구조를 조금 더 개편하고 효율화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같은 사업 내용으로 중복 지원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든지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재공모가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단체별로 연간 지원신청 상한제를 마련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123페이지를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 210명에 대해서 심의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심의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렇게 전담심의를 앞으로 운영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등으로 해서 1월에 설문조사를 추진을 하고 장르별로 현장전문가 F.G.I를 추진하고 사업부서 워크숍을 하며 위원님들과 워크숍을 1월 4째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공론화를 추진하고 2월에 전체적으로 의결하고 4월에 수시공모를 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연극/뮤지컬 분야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고민이 워크숍 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심의위원 구성을 새로 했는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전담위원을 따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지점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되더라도 “이분들은 괜찮다.” 라고 해서 된 구성원인데 이분들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모신다고 하면 또 다른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첫 번째로 고민됩니다.

두 번째는 연극/뮤지컬을 특정 장르로 말씀드렸을 때 이번에도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대부분 연출, 작가, 배우, 기획, 행정, 제작까지 모든 분들이 수혜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제를 하다보면 3번, 4번 걸러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7명이 4~5개월 이상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것만 모니터링하고 심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본인이 수혜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연극/뮤지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분들이 현장을 읽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됩니다. 특히 연극/뮤지컬은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염려가 되었던 게 심사만 하고 나 몰라라 했던 부분이 내가 심사했던 단체들의 공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긴 시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마지막 페이지에 전담심의회 내·외부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외부의 심의위원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1월 첫째 주면 아직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가 안되었는데 외부에 설문조사를 먼저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그러니까 그냥 콘셉 정도만요. 이런 것으로 전담심의회가 운영된다면 어떤 의견이신지?

김미라 위원 : 그런데 1월에 꼭 해야 될 상황인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라 위원 : 저는 저희가 아직 전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머리에 안 들어와 있어서 과연 설문조사가 되는가 싶어서 여쭙봤고요. 관련해서 이훈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분의 전담심의관이, 예를 들어 각 분야에 1,000건이 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모니터링을 하며 개선방안을 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한 분야 당 전담심의위원을 몇 분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뮬레이션은 아마 사무국에서 제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공모사업의 진행을 해 보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워크숍에서 논의할 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120페이지에 심의일수가 나와 있는데요. 평가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평가일수로 물론 정할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500건 정도를 보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3주 정도가 걸리면 가능할 것 같고, 물리적으로 서류 5일, 인터뷰와 실연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관련해서도 일정별로 다 다르고 그 일정에 그분들이 가셔야되는 것도 있어서 모니터링은 조금 폭넓게, 그러니까 심의위원 후보단 666명 중 같이 선정해서 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미라 위원 :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을 위촉하든 또는 공모를 하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 부분이 나와야죠. 왜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담심의관 제도를 실시했을 경우 해야 될 일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저희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공모사업의 선정과 평가에 대한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막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워크숍 일정을 여쭙볼 것인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단, 수시지원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할 것이고요. 차후년도 사업은 9월에 디자인을 해서 11월과 12월에 어차피 전면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지원 4개 사업에 대해서 해 보고요. 모니터링도 올해는 심의했던 분들에 대해서 준 전담심의위원으로 가는 것을 해보고 나서 9월에 다시 논의를 해서 인원이나 횟수 그리고 부족하다면 재차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워크숍 일정 때 사무처에서 안을 드리고요. 그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재차 검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열 위원 : 검토를 하실 때 저도 사실은 심의하고 모니터를 꽤 했는데 심의와 모니터는 다릅니다. 그리고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 강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심의는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모니터가 잘못돼서 자기가 그다음에 못 받게 되면 그 민원의 강도는 너무나 세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니터 인원을 늘릴 수도 없어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수가 최대한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한다는 게 이상적이기는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모니터링을 그냥 외부 팀에게 넘겨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요. 모니터를 한다는데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의 팀이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너는 안 줘.” 이런 기능보다는 이런 팀한테 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다음에는 심사기

준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지, 지금 현재는 심사가 일회성으로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성 있게 그다음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전담심의관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팔로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영국식으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 권위를 갖게 되면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봐요. 전담심의관이 지정되고 최소한 2~3년을 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권위가 서지 않겠어요? 지금 영국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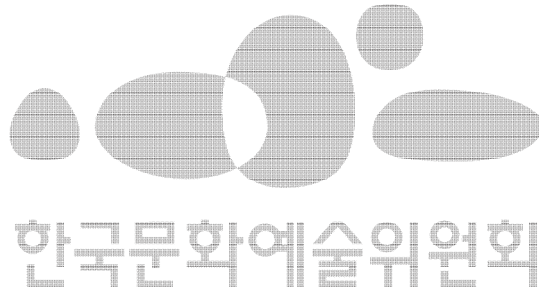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더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텐데요. 일단 선발해서 운영해 보고 나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도저히 이것은 못 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 보더라도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보시죠. 그래서 워크숍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뭔지를 논의하시죠. 여기에서 끝까지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고 추후 별도의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1월 위원회 전체회의 겸 워크숍은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까지 모처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회의 종료)